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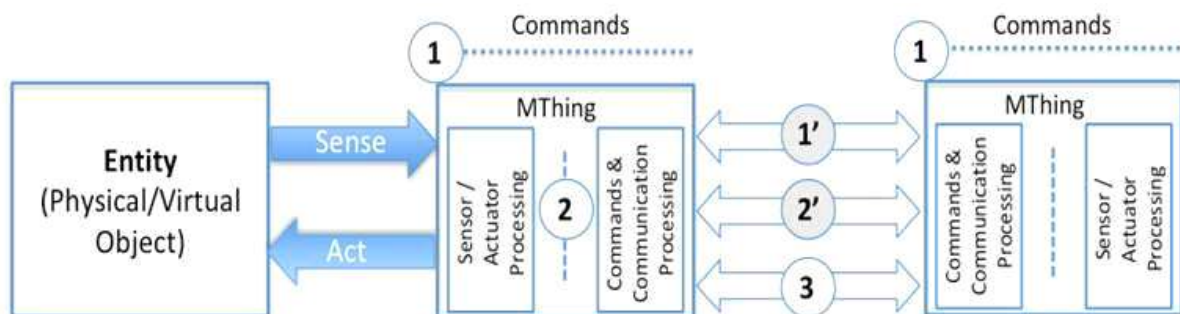
MPEG-IoMT 표준 현황

양안나 (주)한일에스티엠 선임연구원

1. 머리말

IoMT 표준은 현재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표준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파트는 다음과 같다.

- Part 1: Architecture
- Part 2: IoMT Discovery and Communication API
- Part 3: IoMT Media Data Formats
- Part 4: IoMT Reference Software and Conformance



[그림 1] IoMT 표준 범위를 표현한 구조

Part 1은 [그림 1]과 같이 IoMT의 구조 및 유스케이스 시나리오를 모아놓은 문서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API 및 데이터 포맷은 Part 2와 PART 3에 정리되어 있다. Part 2는 IoMT 구조에 따른 IoMT간 통신을 위하여 서로의 특성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단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Part 3에서는 유스케이스에 따른 각 IoMT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PI와 메타데이터가 정의되어있다. Part 4에서는 Part 2와 Part 3의 메타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2019년 7월 스웨덴 고텐버그에서 개최된 127차 미팅의 결과로, Part 1 ~ Part 3 문서는 현재 FDIS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Part 4의 경우 DIS 단계에 있다.

이번 미팅에서는 차기 IoMT 버전을 위한 새로운 유스케이스 모집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API 및 메타데이터 수집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참여 인원을 독려하고 있다.

2. 주요 회의 내용

127차 고텐버그 미팅에서는 IoT 차기 버전을 위한 새로운 유스케이스의 모집 및 각 기관들의 제안이 주요 쟁점 사항이었다. 명지대학교, 건국대학교,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플렉스 코아 등의 기관에서 새로운 유스케이스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TuC(Technology under consideration) 문서가 도출되었다. 다만, IoT 차기 버전의 진행을 위해서 기존 IoT 결과에 대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본 회의 중 IoT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토의가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ETRI와 한국항공대학교에서 기존에 제안되었던 표준 기술에 대한 참조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검증 결과를 제안하였으며, 명지대와 한국항공대학교에서는 추가로 MPEG-V를 참조하여 기존 기고에 대한 이진표현에 대한 기고를 제안하였다. 다만, 이진표현을 위해서는 선택스에서의 추가 고려사항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 후 추가 기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3. 맺음말

이번 미팅에서 기존 기고에 대한 이진표현 방안이 제안되어 차기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제안 기술 기고에 따른 이진표현 기법이 제안될 예정이다. 또한, IoT Part 1 ~ Part 3문서가 FDIS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차기 버전을 위한 새로운 유스케이스 기고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선택스와 메타데이터의 제안도 필요하다.